

중국대학 파견 교환학생 결과보고서

■ 파견대학 정보

대 학 명	톈진외국어대학교	기숙사비	x/한 학기
파견지역	x	기숙사비 납부방법	일시불() 분할납부() ※분할납부시 납부횟수를 기재
파견기간	2021년 2학기	기타비용	x

■ 파견자 정보

성 명	△△△	학 과	△△△학과
성 별	여	학 년	4

본인은 순천향대학교 교환학생으로서 상기와 같이 수학하였으며 수학 결과 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 1. 대학 현황 보고서
2. 교환학생 파견 수기

2021. 1. 11 .

파견자 : △△△ (서 명)

국제교육교류처장 귀하

대학 현황 보고서

■ 수업

코로나 19로 인해 직접 현지에 파견 가지는 못하고,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개강 전, 보내주신 간단한 레벨테스트나 hsk급수로 각자 원하는 레벨의 반을 선택하였고, 자신이 선택한 반의 QR코드를 통해 각 과목의 위챗 단체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개강은 9월 13일에 했고 모든 공지는 각 과목 위챗 방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과제도 위챗 제출이 많았습니다. 위커탕(雨课堂)이라는 위챗 내의 프로그램으로 모든 수업을 진행하였고 과제 제출도 하였습니다. 중국과의 시차가 있어서 실시간 수업을 듣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모든 수업을 녹화해서 위커탕에 업로드 해주셨고, 24시간 내에 수강하면 출석 인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高1班을 선택하였고, 이 반에서 12명 정도의 학우들과 같이 모든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월요일은 阅读와 视听说수업을 했습니다. 阅读 수업은 선생님께서 녹음을 넣은 문법 위주의 ppt파일을 위커탕에 올려주시면 듣고, 과제를 해서 위챗 단체방에 제출하는 수업이었으며 유일하게 실시간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중간고사는 평소 과제와 형식이 같았고, 기말고사는 수업 내용을 기반으로 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视听说 수업은 동영상을 보며 중국의 지역을 통해서 중국문화를 이해하는 수업이었습니다. 과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내용이 가장 어려운 수업이어서 이해하는데 조금 힘들었습니다. 중간고사는 보지 않았고, 기말고사는 수업 때 풀었던 문제를 위주로 출제되었습니다.

화요일은 精读와 写作수업을 했습니다. 精读 수업은 수업 전 나눠준 pdf 교재 파일로 진행하였고 마이크도 켜고 각자 발표도 하며 소통을 주로 하는 수업이었습니다. 발표는 교재에 나온 문제들을 각자 작문하며 발표하기도 하고, 본문 읽기, 단어 읽기 등을 하였습니다. 과제는 교재에 나온 문제를 풀어 위챗으로 보내거나 위커탕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형식이 같았고, 모두 수업시간에 풀었던 문제와 단어를 기반으로 출제되었습니다. 写作 수업도 수업 전 나눠준 pdf 교재 파일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발표도 여러 번 하였고, 릴레이 글짓기 형식으로 같은 반 학우들과 하나의 글을 완성하는 활동도 하였습니다. 중간고사는 치르지 않았고, 기말고사는 시험을 보았습니다. 시험에는 수업 내용도 있었고, 작문하는 것도 출제되었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은 口语와 精读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口语도 수업 전 나눠준 pdf 교재 파일로 진행하였고 수업 내용은 교재를 기반으로 하며 마이크를 켜서 소통하는 수업이었습니다. 교재에 나오는 단어를 같이 따라 읽고 혼자 발표도 하며 단어 공부를 하였고, 본문도 마이크를 켜고 혼자 읽어 보며 틀린 발음이나 못 읽는 단어들을 알려주셨고, 작문하기, 특정 주제에 대해 자기 생각 말하기 등 등 여러 활동을 하며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모두 보았고, 문제 출제도 수업 내용을 기반으로 하며 시험 전 교수님께서 형식이나 범위 등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각 수업의 기말고사가 끝나면 그대로 중강을 했습니다.

阅读를 제외한 모든 수업은 1시간 40분씩 진행하였습니다. 비교적 오래 수업을 하다 보니 중간에 5~10분씩 쉬는 시간도 주셨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시차가 1시간 정도여서 모든 수업은 실시간으로 참여했고, 모든 교수님이 학생들도 자주 마이크를 켜고 주도적으로 발표하며 같이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발표하기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모든 교수님께서 편안한 분위기로 수업을 해주셔서 부담 없이 발표하며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교환학생 파견 수기

처음에는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게 되어서 좋고 편한 점이 좀 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학교의 수업을 진행해보니 중국으로 직접 파견 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외국어대학교 특성상 굉장히 다양한 국적의 학우들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직접 만나서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았고, 소통이 위주인 수업을 듣다 보니 직접 대면으로 수업했으면 부족한 회화 실력을 늘리는 데 도움이 더 많이 됐을 것 같았습니다. 또 현지 대학의 활동은 참여하지 못하고 매주 수업만 들어야 한다는 점도 매우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이어도 중국인 교수님께서 소통을 중요시하다 보니 중국인들이 실제 말하는 말투나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으며, 성격상 처음에는 주저하던 여러 발표도 잘 할 수 있게 있었습니다. 회화 실력을 늘리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는데 회화도 확실히 이전보다는 더 자신감이 생겨서 이 정도면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도 모두 굉장히 친절하셨고, 비록 온라인상이었지만 중강을 한 지금 수업 때 배웠던 것들이 아직도 기억이 날 정도로 항상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상황상 한 학기 더 연장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가능했다면 연장을 선택했을 정도로 좋은 한 학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에 교환학생 지원은 후회 없는 선택이었고 온라인으로라도 참여할 수 있어서 만족했습니다.